

수입차는 “수입 많은 사람의 차”?

- 월수입 1천만 원 이상은 27%가 수입차 구입

지난 1년간 수입차를 산 사람들과 국산차를 산 사람들이 보인 가장 큰 차이는 수입에서의 차이였으며,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수입차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다음 차로도 수입차를 산 비율이 높았고, 수입차를 타다가 국산차로 옮겨 가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앞으로도 한참 동안 수입차는 수입 많은 사람들의 차일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마케팅인사이트(www.mktinsight.co.kr)가 2012년에 자동차 소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기획조사 결과에서 '최근 1년간 새 차를 구입'한 8,559명을 국산차 구입자와 수입차 구입자로 나눠 이들의 사회인구적 특성을 비교했다[표1].

[표1] 수입차-국산차 구입자 특성 (최근 1년간 새 차 구입자)

		A. 국산차 구입자	B. 수입차 구입자	B-A
성별	남성	73%	75%	+ 2%p
	여성	27	25	- 2
연령	20대	15	10	- 5
	30대	41	44	+ 3
	40대	28	30	+ 2
직업	자영업	17	24	+ 7
	전문/경영직	13	24	+11
	사무/기술직	41	30	- 11
월 수입	5~600만원	30	25	- 5
	7~900만원	13	26	+13
	1,000만원 이상	9	30	+21
		(73)	(27)	(100)
현 보유차 대수	2대 이상	40	55	+15
	현대	35	32	- 3
이전 보유차	기아	22	15	- 7
	한국지엠	14	7	- 7
	르노삼성	5	10	+ 5
	쌍용	4	5	+ 1
	수입차	2	24	+22
처음 구입		19	8	- 11

Base: 최근 1년 간 새 국산차 구입자 7,772명, 새 수입차 구입자 787명

수입차 구입자는 국산차를 산 사람들에 비해 남성 비율(75%)은 약간 높고(+2%p) 20대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이견호 상무 Tel. 02) 6004-7622 Mobile. 017-225-1291 Fax 02) 543-5984 e-mail: leekh@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panelinsight.co.kr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5%p) 두드러진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 연령에 따른 수입차 구입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수입차 구입자 중에 자영업(24%)과 전문/경영직(24%) 종사자가 국산차 구입자(각각 17%, 13%)보다 많고, 사무/기술직 종사자는 30%로 국산차(41%)보다 11%p 적었다.

가장 큰 차이는 가구 월평균 수입에 있었다. 수입차를 산 사람들 중에서 '가구 월평균 수입 700만 원 이상'이 56%로 1/2을 훌쩍 넘지만 국산차 구입자에서는 22%에 그쳤다. '가구 월평균 수입 1천만 원 이상'은 수입차 구입자 중 30%에 달했지만 국산차는 9%에 불과했다. '가구 월평균 수입이 1천만 원 이상'인 소비자만을 따로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이들이 구입한 새차 중 국산차와 수입차의 비율은 각각 73%와 27%였다. 이런 수입차 구입 비율은 2012년 10%였던 수입차 점유율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월수입을 '7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도 수입차를 산 비율은 21%로 5명 중 1명 이상은 새 차로 수입차를 샀다.

현재 갖고 있는 차 이전에 타던 차를 보면, 현 수입차 구입자들에서는 현대차(32%), 수입차(24%), 기아차(15%), 르노삼성(10%)의 순으로 많았다. 국산차 구입자들이 이전에 타던 차와 비교하면 르노삼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고(+5%p), 경차 판매 비중이 큰 기아차와 한국지엠의 비율은 더 낮다(각각 -7%p). 수입차의 판매 증가로 상대적으로 가장 손실이 큰 회사는 르노삼성임을 알 수 있다.

수입차를 타다 국산차로 돌아간 소비자는 국산차 구입자의 2%에 불과한데, 이들이 이전에 소유했던 차가 수입차라고는 해도 새 차가 아닌 중고차였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새 수입차를 타다가 새 국산차로 옮겨가는 것은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수입차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큰 변수는 수입이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 소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자동차 리포트 12-48호, '내 수입에 맞는 차는?'](#))을 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고급 수입차(차량 가격 5천만 원 이상)를 구입·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억 5백만 원, 일반 수입차(차량 가격 5천만 원 미만)는 연 7천 6백만 원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번 결과는 수입차를 살만한 사람의 월수입을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27%, 700만원 이상으로 하면 21%가 이미 지난 1년간 수입차를 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점점 중저가 수입차의 한국 진출은 늘고, 고가 수입차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이는 수입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수입차는 지금까지의 경쟁 영역에서는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이건호 상무 Tel. 02) 6004-7622 Mobile. 017-225-1291 Fax 02) 543-5984 e-mail: leekh@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panelinsight.co.kr

몸집을 불리는 동시에 중저가 수입차 시장으로 그 전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막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그 속도를 늦추는가가 관건이다.

=====

㈜마케팅인사이트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월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를 10만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는 매년 9월 중순부터 발표되고, 11월에 5년간의 변화추세 분석을 포함한 '[한국 자동차 품질 백서](#)'로 발간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차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산업체들에서 활용하고 있다.

언론 발표 내용과 '한국 자동차 품질 백서' 내용은 ㈜마케팅인사이트가 개발한 '한국형 온라인 자동차 컨슈머리포트' 사이트인 'AutoInsight'(www.autoinsight.co.kr)에 실리고 있으며, Daum의 자동차섹션 중 '[오토칼럼](#)'에도 상시 게재되고 있다. 특히 'AutoInsight'에서는 소비자들의 제품 품질 및 서비스평가 내용을 자동차 모델별로 비교하는 'One Page Report'를 볼 수 있다.

[조사개요]

- 조사 수행 기관: 마케팅인사이트(www.mktinsight.co.kr)
- 조사 성격: 기획조사(Syndicated study)
- 모집단: 전국의 e-mail 이용하는 자동차 사용자
- 조사 시점: 2012년 7월
- 자료 수집 방법: 온라인 우편조사 (e-mail survey)
- 조사 규모: 총 응답자 95,012명

위 조사 결과는 ㈜마케팅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매년 7월에 실시해온 대규모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 조사' 중 2012년 조사결과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에 대한 모든 권한은 ㈜마케팅인사이트에 있으며, 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autoinsight.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건호 상무 T:02-6004-7622 e-mail: leekh@mktinsight.co.kr

Copyright © Marketing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이건호 상무 Tel. 02) 6004-7622 Mobile. 017-225-1291 Fax 02) 543-5984 e-mail: leekh@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panelinsight.co.kr